

3. 가구분포

총 6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담양 전씨(潭陽田氏), 강릉 유씨(江陵劉氏), 울진 장씨(蔚珍張氏)가 주종을 이루며 거주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개골동

마을이 골(谷)에 있다 하여 개골동(漑谷洞)이라 부른다.

2) 뒷섬골

옛날부터 토지가 비옥하여 곡식이 잘 되었는데 1되의 씨를 뿌려 1석(石)의 수확을 하였으므로 뒷섬골이라 부른다.

3) 성황당(城隍堂)

마을 앞 들판 가운데에 사당이 있고 그 주위에 오래된 고목(古木)으로 된 성황당이 있는데, 매년 정월 보름날 자시(子時)에 엄선된 제관(祭官)이 마을의 강녕(康寧)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제15절 읍남3리(邑南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뒷산 너머에 읍내2리가 있으며, 남쪽은 읍남2리인 말루(抹樓)와 접하고, 북쪽은 연지1리인 현내동(縣內洞)이다.

2. 마을의 역사

1750년(영조 26)경에 홍천 용씨(洪川龍氏)가 처음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주민들은 마을을 ‘공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조선조에 공세(貢稅)를 관장하던 창고가 소재한 곳으로 ‘공세’가 변하여 공석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조 한양으로 해산물[건문어, 전

복] 등을 세공(稅貢)하던 곳이라고 하며, 또는 옛날 곡물로 세금을 바칠 때 1263년(원종 4) 이후에 강원도로 배를 이용하여 세공(稅貢)하던 곳이라 하여 공세리(貢稅里)라 전하기도 하며, 또한 서기 100년, 실직왕(悉直王)이 울진의 안일왕(安逸王) 산성에 머물 당시 삼척지방의 조세를 배로 운반하던 곳이라 하여 공세리(貢稅里)라 하기도 한다.

3. 가구 분포

총 51세대가 거주하며 평창 이씨(平昌李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안동 김씨(安東金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울진 장씨(蔚珍張氏)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별신제(別神祭)

3년마다 동민이 용왕신(龍王神)에게 마을의 무사와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는데 동해안별신굿 주무를 초빙해 2~3일간 별신굿을 펼친다. 현재는 별신굿을 행하지 않는다.

2) 성황당(城隍堂)

마을 가운데에 사당을 모시고 있는데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자시(子時)에 엄선된 제관이 마을의 강녕(康寧)과 풍어(風魚)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있다.

제16절 읍남4리(邑南四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이 마을은 상토일(上吐日)과 중토일(中吐日), 하토일(下吐日), 올시골[오시골 ; 五老, 五里]의 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은 망재 고개 너머에 있는 신림리(新林里) 쪽에서 흘러오는 내(川)를 지나 올시골이 있고, 서쪽은 금산맥(錦山脈)인 가진재를 넘으면 대흥리(大興里) 지역이며, 남쪽은 금산(錦山) 지맥인 바리재 너머에 행곡리가 있고 불영사계곡 입구다. 북쪽은 마을 앞 봉림(鳳林)재를 넘으면 고성2리인 기골이다. 동쪽은 읍내3리(月邊洞)와 접하며, 서쪽은 망재를 경계로 상토일(上吐日), 중토일(中吐日)이 있고, 남쪽은 하토일(下吐日)이다. 북쪽은 고성2리(古城二里)인 게골과 접해있다.